

전시회 소식

프리뷰 인 서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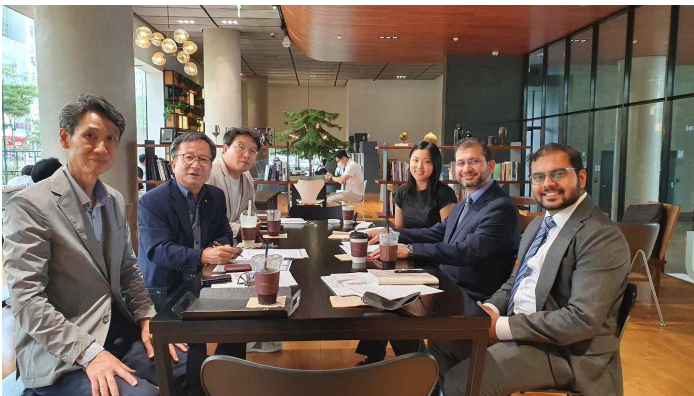
「프리뷰 인 서울 2022」이 8월 24일(수)부터 8월 26일(금)까지 3일간 COEX A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 및 기능 제품 등 섬유패션산업의 전스트림을 총망라하는 프리미어 아이템을 선보이며, 섬유·패션·디지털 융합전시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되며, 국내외 바이어의 주요 관심 아이템을 분석하여 참가업체와 사전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주상담 성과를 제고시키면서 소재와 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기계협회 소식

주한 인도대사관 공관 차석 일행과 미팅

우리 협회 손종규 회장은 7월 21일(목) 대구은행 제2본점 1층 로비아네 카페에서 주한 인도대사관 SURINDER BHAGAT 공관 차석, Swapnil Devidas THORAT 이등서기관과 섬유기계 및 관련 부품 등에 대한 양국의 수출입 동향과 상호 기술 협력 방안, 인도 현지 투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정호 단장이 함께 동석하였다.



주한 인도대사관 공관 차석과 미팅 장면

무역 및 시장정보

중국서 베트남으로 제조기지 이전 계속

애플, 샤오미 등 전자제품 제조 기업들이 제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 중이다. 애플의 대만계 파트너사는 베트남에서 11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그 중 4개 기업 Foxconn, Luxshare, Pegatron, Wistron은 베트남 내에서 공장을 확장 중이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Tim Cook)은 지난 5월 17일 베트남 총리와 의 만남에서 베트남 공급업체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음을 밝혔다. 최근 애플은 자사 제품 「아이패드」의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으며, 애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선이러폰 제품인 「에어팟 프로2」 또한 올해 베트남에서 제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샤오미 역시 베트남으로 일부 제조라인을 이전하면서 지난 5월 첫 베트남 생산제품을 출시하였다. 기업들의 脫중국, 베트남으로 이전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노동자의 임금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근로자의 월 임금은 7,000CNY (1,044달러) 이고,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7,840,000VND (335.4달러) 으로 베트남 근로자 임금이 2배 이상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산업단지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으로의 이전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지역 산업단지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1제곱미터 당 12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호치민시 산업단지 임대료는 1제곱미터 당 198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다. 이어 하노이가 1제곱미터 당 140달러, 다낭시는 1제곱미터 당 80달러 등이다. 脫중국, 베트남으로 제조기지 이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원부자재는 아직까지 대부분 중국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인도 국가경제력 회복지수, 2위로 상승

2019년에 6위였던 인도 국가경제력 회복지수 (IER) 순위는 2020년에 4위로 두 단계 상승 후, 2021년 3위를 거쳐 현재 2위로 올라섰다. 2022년 IER 순위는 ① 독일·캐나다 ② 인도 ③ 중국 ④ 이탈리아 ⑤ 일본·영국 ⑥ 미국 순서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을 개발도상국들 중 월등히 높은 수치인 8.2%로 전망하였다. 수출도 2021-22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4,178억 달러를 기록하고, 지난 3월에는 월간 기준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식량난 속에서 인도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성장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새로운 무역을 통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인도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는 있으나, 국제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침체 우려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인도중앙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7.8%에서 7.2%로 0.6%p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지난 7월 13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긴급 통화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도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5.4%에서 4.7%로 하향 조정하여 4%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2년 1 ~ 5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945,398	359,020
국 가 별	중 국	43,663	199,329
	미 국	520,873	3,313
	일 본	6,759	14,422
	베트남	57,609	69,471
	유럽(계)	35,132	28,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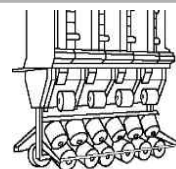
■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및 연말 발효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21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국제 무역 협상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및 조약 발효 계획을 발표하였다.

양국의 CEPA 협정은 곧 있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양국의 CEPA 발효 시 인도네시아는 92%의 관세 철폐, 한국은 9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1년 양국의 총 교역액은 184억 달러로 이중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액은 89.8억 달러이며, 한국으로부터 수입금액은 94.2억 달러 규모이다.

2022년 1~3월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총 교역액은 60.9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액은 31억 달러, 수입액은 29.9억 달러이다. 이번 CEPA 발효 시 양국의 농업, 어업, 임업, 인프라,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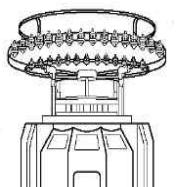


KOTMA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가입 안내

담당 : 조성환 상무이사

문의 : 053-817-5954

대상 :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사



■ 중국 소흥, 섬유기업 줄도산 직면

중국 최대의 섬유도시인 소흥(紹興)은 2010년대 초 절강성 소흥시 인민정부가 중국 원단시장 판매와 한국 패션기업들의 진출을 독려코자 각종 투자 설명회를 유지하며 우대 정책을 펼쳤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탈중국 가속화로 오더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내 모 섬유기계 업체의 중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소흥 지역에 많은 섬유 업체들이 부도가 났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오더가 없다. 8월까지 호전이 안 되면 거의 반수 업체들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중국 내 각종 보고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인도 경제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가 인용 보도한 First Finance와 Economics Daily of china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문은 지난해보다 40% 감소했다. 중국 방직수출입상공회의소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 방직 의류 주문 이전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이 중 면직물 주문 이전 규모는 약 1억 달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26%는 아웃바운드 고객 주문 비율이 30% 이상, 기업의 39%는 아웃바운드 고객 주문비율이 10~30%사이다. 한편 기업의 90% 이상은 현재 수주 일정이 작년 하반기와 4분기에 비해 단축됐으며, 기업의 거의 59%가 13개월 수주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출입 데이터에 따르면 업계 내부자들이 올해 대부분의 의류 공장 주문이 9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중국의 의류, 가정용섬유제품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분명한 둔화세를 보였다.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산업체인 레이아웃 변경 및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영향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 수출 주문이 대거 해외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면직물 및 의류수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9년 23.5%에서 17.1%로 떨어졌으며, 면 의류 수입의 경우 중국 점유율은 2019년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또한 면직물 주문은 주로 인도로 이전되고 의류 주문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중국 방직수출입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기업의 85%가 「고객 주문의 외부 이동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10일 중국의 기온이 처음으로 40°C도 넘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다. 급기야 중국 당국도 주요 제조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의 기업과 가정에 전력을 배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동부 해안의 주요 수출 및 제조 중심지 저장성의 에너지국은 저장성을 비롯해 항저우, 샤오싱, 하이닝 내 폴리에스터 생산 및 섬유 프린팅, 염색업체들의 일부 에너지 집약적 기업들에게 전력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했다.

<출처 : TIN뉴스>

■ 베트남 정부, RCEP 실행계획 논의

RCEP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 베트남 공상부와 농업농촌개발부가 참여하였으며, RCEP을 통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베트남 무역활동은 빠르게 성장 중으로, 2021년 베트남의 교역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하면서 6,70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은 교역액 기준 세계 상위 20위권에 편입하였으며, 작년 베트남은 4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6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RCEP이 베트남 교역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17개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 가입한 협정은 RCEP이다. RCEP에는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RCEP으로 베트남 기업들이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산업계 소식

■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 발족

국내 섬유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제의 발굴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섬유산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이 국회에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대구 달서갑)은 「국회섬유산업 혁신포럼」 창립식 및 정책포럼을 7월 19일(화)에 국회의 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실 주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관 아래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부(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섬유·패션기업, 유관 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박훈 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 섬유산업의 위상과 미래 발전방안」을 내용으로 제언한다. 패널발표 및 주제를론에서는 백두현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 김정희 블랙야크 상무, 조은정 코오롱 미래기술원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석준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의 섬유산업 인식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섬유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2020년 국내 국방 소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방섬유 및 공공부문 근무복 소재의 국산화를 촉구하는 등 국내 섬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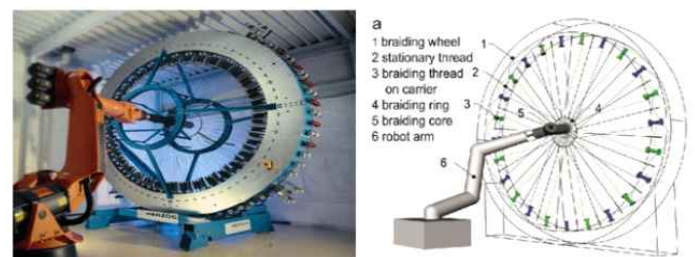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 창립식 및 정책포럼 기념사진

<출처 : TIN뉴스>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700bar급 수소압력용기 제조용 Radial braiding 방식의 연속 제조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주)티포엘, 공동 연구개발기관 (주)화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와 협업하여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직경 및 곡률 변화가 있는 700bar급 수소압력용기의 제조가 가능한 Double horn-gear 방식의 radial braiding 연속 제조장비 및 공정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수소압력용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압력용기의 양산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조시스템 및 공정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브레이딩(Braiding) 장비의 경우 각 캐리어(원사를 일정량으로 재권취하여 브레이딩 장비에 장착하는 원사 공급 부품)에 장착된 섬유를 모은 후 트랙 프레임과 캐리어의 움직임을 통해 섬유를 교차시켜 패턴을 엮어 만드는 프리폼의 연속 제조가 가능한 장비로써, 종래의 브레이딩(Conventional braiding) 장비는 캐리어가 장비와 수직으로 장착되어 있어 편조 시에 원사의 손상이 다수 발생하며 직경, 곡률 등의 변화가 어려워 제조 가능한 형상이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개발사업을 통해 캐리어를 장비의 원주 방향으로 장착하여 프레임의 중심부에서 프리폼을 제조하는 방식인 레디얼 브레이딩(Radial braiding) 장비를 개발하여 섬유 간 마찰 거리를 줄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곡률 및 형상을 지닌 3차원 프리폼의 연속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운송 분야에 적용되는 압력용기 및 탱크의 고속, 대량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Radial Braiding 장비 및 원리(출처: Herzog社)

<작성자 : 복합재융합연구센터 권혜인 선임연구원>